

人生 哲學者「딜타이」

그의 生誕 百週年을 보내면서(一)

田元培

머리말

지난 十一月十九日是 現代의 最大인 生哲學者인 **윌헬름, 딜타이**의 生誕第百週年 記念日이다. 現代 哲學上에 있어 서는 아직까지도 新칸트學派, 現象學派, 新헤겔學派 等の 合理主義的 主知主義的 諸潮流가 支配하고 있지 마는 最近에 와서는 以上の 모든 哲學 學派도 벌써 沒落의 徵兆를 보이고 있으며, 現象學派 中에서 가장 새로운見解를 開拓하였다고 傳하는 마틴, 하이데겔[하이데거]의 存在論 哲學도 말하자면 모든 存在의 時間性, 歷史性과 人間的 存在의 外界環境에 對한 交渉의 形式을 論究하여 人生問題에 轉向하고 있으며 더욱이 最近에 와서는 히틀러의 나치스당에 入黨하여 獨逸國民意識의 指導者로 活動하고 있는 現狀을 보면 지금 우리가 現代에 있어서 人生問題에 對하여 가장 깊은 觀心을 가진 哲學者인 □□□□이외 □□發達史上에 남기□□을 회□하여 보는 것이 決코 □□없는 일이 아닐 줄 안다.

(一), 人間으로서의 딜타이

윌헬름·딜타이[빌헬름 딜타이]는 一八三四年 十一月十九일에 獨逸라인란드의 뻬브리히[비브리히]·암·**마인**에서 出生하여 一九一一年 十月一日에 불좌노 附近인 싸이즈란 땅에서 作故하였다.

그는 하이델베르크大學과 伯林大學에서 **니츄·르벵스텐·트렌데렌부·란케** 等の 指下에 神學과 歷史와 哲學을 專攻하고 나중에는 伯林大學의 私講師가 되었다. 그는 一八六六年에 비로소 마-젤大學의 招聘을 받아 哲學 正教授가 되었고 一八六八年에는 쾰-르大學, 一八七一年에는 브레스라우大學에 傳任하여 教鞭을 잡고 있다가, 一八八二年에 룩체-의 後繼者가 되어 가지고, 伯林大學에 復歸하였으며, 아울러 獨逸 學士院의 會員이 되었다.

十九世紀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人間生活의 機械化와 아울러 大都市的 文明의 勃興으로 人間生活이 極度로 外面化되었든 時代다. 이 時代에

있어 서의 人間生活의 外面化는 世紀의 轉換期에 이르러는 一種의 □廢적 風潮로 變하였으니 이것이 所謂 世紀末的 精神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沈鬱한 失望과 落膽속에 빠져서 明日의 理想을 잃고 다만 暗黑과 塗炭가운데서 헤매일 따름이 었다.

그리하여 哲學上에 있어서도 一方으로는 쇼펜하우엘流의 厭世的 宿命論이 時代人의 意識에 投合되었으며, 他方으로는 모든 人間을 吞吐하려는 大都市의 資本主義的 物質文明의 思想的 表現인 機械主義的 唯物論과 自然 科學的 實證主義가 全盛하고 었었다.

이때에 딜타이는 그러한 人間의 主知主義的 外面化에 對하여 抗議를 突出하는 同時에 따듯한 血脈이 循環하고 있는 全人間의 生命을 다시 回復할라는 浪漫主義的 非 合理主義的 情緒를 多分히 가지고 었었다. 그리 하여 딜타이의 이 浪漫主義的 情緒는 그의 多色多彩的 全 人生 哲學思想의 底流가 되어 었든 것이다. 따라서 딜타이의 關心은 어디까지든지 現實의 此岸에서 울고 웃는 具體的 人間生活의 全體의 □□에 었었다.

그러나 딜타이는 이와 같이 人間生活의 모든□□□을 哲學的□안의 土臺로 삼았것마는 그의 人間으로서의 日常生活은 極히 平凡하고 單調하였다. 그는 孤獨과 寂寞을 좋아하고 煩雜을 싫어하였다.

그러므로 딜타이는 生前에 何等의 逸話도 남긴 일이 없었다. 이 點에 對하여 딜타이의 愛□인 現在의 게을그·밋슈 敎授夫人은 딜타이의 爲人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버지에게 對하여는 學究生活이 그의 生活의 全部요 그 外에 아무런 이야기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딜타이의 生活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特記하지 않으면 안 될것은 그와 요크伯爵과의 友誼였다.

그들의 友誼는 이 世上에서 다시없이 어여쁘고 奇特한 事件이었다. 딜타이는 自己가 어떠한 問題를 가지고 생각하는 일이 었으면 그는 반듯이 一一이 요크伯爵에게 알리 우고 또 요크伯爵의 意見을 求하였다.